

SUN 호출 이범석 "부활투 보라"

군복무 마치고 KIA 타이거즈 복귀

미야자키 캠프 '싱싱투' 본격 훈련

KIA 타이거즈의 이범석이 강속구 군단 재합류를 위한 날갯짓을 시작한다.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KIA 투수 이범석이 20일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다. 목적지는 KIA의 마무리 캠프가 꾸러진 미야자키다.

지난달까지 모교인 온양중에서 공익근무를 했던 이범석에게는 2년만의 해외 캠프다. 지난 2009년 8월 어깨 수술을 한 뒤 재합류를 해온 이범석에게는 '싱싱투' 부활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범석은 "모교에서 야구부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열심히 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아직 어깨가 100%의 상태는 아니다. 70% 정도 재활이 이루어졌다. 캠프에 가는 게 기대도 되지만 현재 모습에 감독님이 실망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된다. 그래도 예전에 삼성 감독으로 계실 때 그 앞에서 강렬한 공을 뿌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투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을 주실 것이다"고 캠프 합류 소감을 밝혔다.

2008년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 KIA 강속구 군단의 셋별로 떠오른 이범석은 이해 7월4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9회 투아웃까지 노히트노런 행진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삼성 사령탑이 선동열 감독이었다. 걱정이 앞서서 캠프지만 이범석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이다. 2008년 캠프스타로 떠올랐지만 2009년 '급한 재합류'로 부상과 함께 쓸쓸히 마운드에서 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범석은 "2008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 첫 승을 거두었던 날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시즌이 끝난 후 어깨가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 2005년 입단 이후 팔꿈치 수술도 했고 개막전 엔트리에 한 번도 들지 못했기에 2009년에는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싶었다"며 "너무 서둘렀다. 결국 어깨 부상이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음이 앞서 큰 좌절을 맛보아야 했던 만큼 이번에는 '안락한 재활'을 통해 마운드에 돌아오겠다는 각오다. 목표는 2012년 후반이다.



이범석은 "투구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어렵게 찾은 폼이라서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예전의 공을 던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주위에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반드시 마운드에서 나의 공을 던질 것이다"며 "서두르지 않고 2012년 후반기를 목표로 내 공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수고했어"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에서 세계연합팀의 최경주(왼쪽에서 두 번째)가 1라운드 포섬 대결을 끝낸 뒤 미국팀의 타이거 우즈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거, 탱크 앞에선 '종이 호랑이'

프레지던트컵 첫날 스코트와 함께 7홀차 완승

2R 오길비와 한 조 ... 하스·와트니조와 승부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제9회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이틀째 포섬(2인 1조로 각자 공을 친 뒤 좋은 점수를 팀 성적으로 삼는 방식) 경기에서 제프 오길비(호주)와 같은 조를 이뤘다. 최경주는 18일 호주 멜버른의 로열 멜버른 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 이틀째 포섬 경기에서 오길비와 팀을 이뤄 미국 대표팀의 빌 하스-니 와트니 조와 승부를 겨룬다.

17일 첫날 경기에서 최경주-애덤 스코트(호주) 조에 7홀차 완패를 당한 타이거 우즈(미국)는 더스틴 존슨과 같은 조로 애런 배들러-제이슨 데이(이상 호주)를 상대한다. 첫날 경기에서 미국이 4-2로 앞선 가운데 18일 포섬 6경기, 19일에는 포섬(2인 1조로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방식)과 포섬 5경기씩 열린다. 또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싱글 매치플레이

이 12경기가 펼쳐진다.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이틀째 포섬 대진표(한국시간)>

▲11시35분 오이시카와 료(일본)-에니 엘스(남아공) - 버바 왓슨-웬 심슨 ▲11시49분 애런 배들러(호주)-제이슨 데이(호주) - 더스틴 존슨-타이거 우즈 ▲12시03분 김경태-애덤 스코트(호주) - 필 미켈슨-짐 퓨릭 ▲12시17분 최경주-제프 오길비(호주) - 빌 하스-니 와트니 ▲12시31분 양용은-로버트 앨런비(호주) - 매트 쿠차-스티브 로드리케 ▲12시45분 찰 슈워펠(남아공)-레이프 구겐(남아공) - 데이비드 톱스-헌터 메이헌

연합뉴스

청야니 "까다로운 상대는 신지애·최나연"

'골프여제' 청야니(대만)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로 신지애(23·미래에셋)와 최나연(24·SK텔레콤)을 꼽았다. 인터넷매체인 블리처 리포트는 청야니가 LPGA에서 함께 경기했던 선수 중 가장 까다롭다고 언급한 5명 중에 신지애와 최나연이 들었다고 17일 보도했다. 올해 LPGA에서 7차례 우승한 것을 포함해 11번 정상에 오르며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킨 청야니는 정신력이 강하고 꾸준한 경

력을 보여주고 있다. 신지애를 막판에 강한 '파이널 라운드 퀸'으로 소개한 블리처 리포트는 청야니가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신지애를 "멘탈 측면에서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선수"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최나연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할 한국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호평하며 "최나연은 뛰어난 그와 경기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청야니는 신지애와 최나연 외에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미야자토 아이(일본)를 상대하기 까다로운 선수로 꼽았다. 그는 미야자토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력 있고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친다"고 평했고, 페테르센에 대해서는 "저돌적이고 경쟁심이 강한 부분이 나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은퇴한 여자골프 전 세계랭킹 1위 오초아에 대해서는 "영감을 주는 대상이자 동경하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기 중학 야구

진흥중 우승

진흥중이 제5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 패권을 차지했다.

진흥중은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여수중과의 대회 결승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인 최상인을 앞세워 4-0으로 승리를 거뒀다.

0-0으로 맞선 4회말 진흥중이 9번 타자 오정민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얻는데 성공했다. 오정민은 6회에는 1사 1·2루에서 2타점 3루타를 때려내며 나홀로 3타점을 기록했다.

진흥중 선발로 나선 최상인은 7이닝 동안 3피안타 3사구 1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여수중 타선을 막아내며 완봉승을 거뒀다. 최상인은 최해식 해설위원의 아들로 '야구인 2세'다. 결승전 완봉승을 장식한 최상인은 대회 MVP에 선정됐다.

우승팀인 진흥중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우승기, 상장, 메달 등이 주어졌으며, 개인 수



진흥중이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타이거즈기 중학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상자들에게는 글러브와 스파이크 등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북지역 야구 유망주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9개 학교가 참가해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대결을 벌였다. 지난날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이어 중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한 KIA는 내년 시즌 고등학교대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 : 최상인(진흥중) △우수투수상 : 조민근(진흥중) △타격상 : 신범수(동성중·8타수 6안타 타율 0.750) △최다안타상 : 김윤호(동성중·6안타) △최다홈런상 : 김승규(동성중·1개) △최다도루상 : 박성한(여수중·2개) △최다타점상 : 장민재(총장중·5타점) △수훈상 : 김재현(진흥중) △감투상 : 안지용(여수중) △미기상 : 김우종(정읍 이평중)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루마썬팅, 3M썬팅, 모비스썬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천연가족시트, 인조가족시트, 수입차 가족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하부언더코팅,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니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분점)

Advertisement for Lumar window tinting services, including 3M and Mobis products, with a list of benefits like UV protection and heat reduction.

Advertisement for natural family car seats, highlighting safety and quality, with a price list for different models.

Advertisement for Hankook tires, listing various models and their feature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 tire shop.

Advertisement for Meguiar's car care products, featuring a 'National Lowest Price' guarantee and a list of product prices.